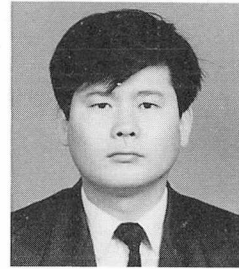


모돈의 이유 및 교배관리



박 봉 화

((주)승원축산 생산부)

주간계획에 의한 농장관리가 보편화되고 있음에 따라 주별 이유두수는 1회로 군집되게 되고 이러한 분포조성에 따라 이유모돈관리는 보다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빠른 발정유도 및 발정지연돈 비율을 낮추기 위한 과학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유직후의 모돈관리가 산자수와 자돈 생시체중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또한 모돈의 연산성 및 도태를 좌우하기도 한다. 이유후 관리 및 교배까지의 사양관리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정사양의 실시

일단 이유시 모돈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줌으로써 각종 소염작용을 돕고 단체를 수세한

후 반드시 강정사양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의 목적과 원리는 다음과 같다.

1)포유중 상실된 체력을 급속히 회복하고 아울러 배란수를 증가시켜 수태율을 높이고 연산성 유지를 유념하여 시행한다.

2)고단백(함량 14%~17%), 고에너지 사료급이를 원칙으로 하고 광물질 및 토크페롤 계통의 영양공급도 좋다.

3)평상시 급여량의 20% 정도를 증량급여한다(1일기준 3kg 내외).

4)강정기간(이유~종부전)중 사료를 꺼리는 모돈의 영양보조를 유념한다.

2. 이유방법의 선택

이유방법에는 군사 이유관리

방법과 스톨에 분리하여 관리하는 고정이유방법이 있으나 그 차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군사 이유

○장점

1)이유모돈과의 심한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정이 뚜렷하고 빠르다.

2)교배적기를 관찰하기 용이하고 발정지연돈의 수가 적다.

○단점

1)심한 몸싸움으로 인해 단체의 손상이 많고 특히 지제사고가 빈번하여 도태의 원인을 야기한다.

2)위축모돈이 발생하여 사료를 꺼리기 쉽고 따라서 강정사양의 목적에 위배되기 쉽다.

3)단체가 경직되기 쉽고 이

로 인해 난자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착상시 균집되어 한 곳 자궁벽에 물려있게 되고 분만시 사산돈이나 체중 미달돈의 생산이 잦다.

나. 스톨 고정식 분리 이유

○장점

1)돈체의 손상이 적고 특히 지제사고가 없다.

2)일단 발정이 시작되면 수태지 허용이 순조롭고 타모돈에 의한 심한 접촉이 배제되어 수태지 회피현상이 적다.

3)안정된 돈체를 유지할 수 있어 난자의 분포 및 이동이 활발하고 수정란의 착상이 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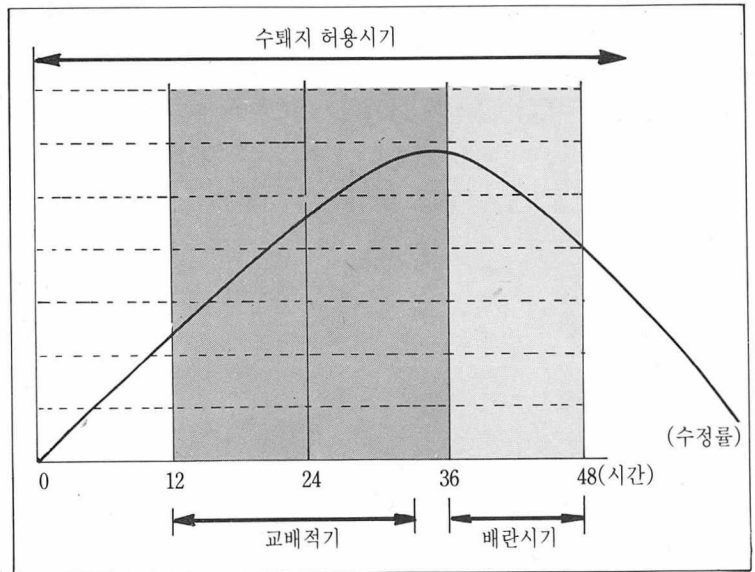
○단점

1)스트레스 및 쇼크가 적어 발정지연돈의 발생이 잦다.

2)발정이 시작되어도 약발정이 많아 교배적기를 놓치기 쉽다.

3)교배관리자의 숙련된 점검 기술을 요구한다.

선택기준 및 판단에 있어 장단점이 있지만 양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해도 무방할 것이라 본다. 즉, 분리이유후 발정지연돈은 재차 군사사육시켜서 발정을 유도하여 두 장점을 획득



<그림 1>적절한 교배시기

해도 좋다.

3. 적절한 교배 시기

대체로 아직 다수의 관리자가 교배시기를 빠르게 택하고 있고 교배간격이 짧는데 이는 산자수와 수태율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일단 수태지를 허용해 주는 시기를 정확히 체크한 10~12시간 후를 1차 교배시기로 택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 배란시기-수태지 허용후 평균 32시간 전후

- 수정시기-종부후 12~24시간

- 난자의 수정능력 유지시기-배란후 최장 10~20시간

- 정자의 난관 도달시기-사정후 약 12시간 등에 유념해야 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율 곡선은 허용개시후 12시간 후부터 급상승하여 36시간을 전후하여 최고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종부적기는 1차 종부 12~24시간,

2차 종부 24~36시간 전후가 좋다. 